

## <제5강>

### 제 6 절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딱딱	딱닥	꼇꼇하다	꼇곳하다
쌈쌈	쌈색	놀놀하다	놀롤하다
씩씩	씩식	눅눅하다	눔눅하다
똑딱똑딱	똑닥똑닥	밋밋하다	민밋하다
씩씩씩씩	씩씩씩씩	씩씩하다	씩씩하다
연연불망(戀戀不忘)	연련불망	쌈쌈하다	쌈쌈하다
유유상종(類類相從)	유류상종	쌈쌈하다	쌈쌈하다
누누이(屢屢-)	누루이	짹짹하다	짹짹하다

### <보기>

한글 맞춤법 제5항 ‘다만’ 규정에서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같은 음절은 ‘딱딱’과 같은 예이고, ‘똑딱똑딱’은 비슷한 음절이다. 제시된 예를 통해 비슷한 음절은 초성이 같은 음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 4 장 형태에 관한 것

### 제 1 절 체언과 조사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
손이	손을	손에	손도	손만
팔이	팔을	팔에	팔도	팔만
밤이	밤을	밤에	밤도	밤만
집이	집을	집에	집도	집만
옷이	옷을	옷에	옷도	옷만
콩이	콩을	콩에	콩도	콩만
낮이	낮을	낮에	낮도	낮만
꽃이	꽃을	꽃에	꽃도	꽃만

발이	발을	발에	발도	발만
앞이	앞을	앞에	앞도	앞만
밖이	밖을	밖에	밖도	밖만
넋이	넋을	넋에	넋도	넋만
흠이	흠을	흠에	흠도	흠만
삶이	삶을	삶에	삶도	삶만
여덟이	여덟을	여덟에	여덟도	여덟만
곶이	곶을	곶에	곶도	곶만
값이	값을	값에	값도	값만

제 2 절 어간과 어미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믿다	믿고	믿어	믿으니
울다	울고	울어	(우니)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입다	입고	입어	입으니
웃다	웃고	웃어	웃으니
찾다	찾고	찾아	찾으니
좃다	좃고	좃아	좃으니
같다	같고	같아	같으니
높다	높고	높아	높으니
좋다	좋고	좋아	좋으니
깎다	깎고	깎아	깎으니
앉다	앉고	앉아	앉으니
많다	많고	많아	많으니
늪다	늪고	늪어	늪으니
젊다	젊고	젊어	젊으니
넓다	넓고	넓어	넓으니
흠다	흠고	흠어	흠으니
윽다	윽고	윽어	윽으니
웁다	웁고	웁아	웁으니
없다	없고	없어	없으니
있다	있고	있어	있으니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넘어지다늘어나다늘어지다돌아가다되짚어가다  
들어가다떨어지다벌어지다엎어지다접어들다  
틀어지다흠어지다

-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드러나다사라지다쓰러지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요.
이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오’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오, 또 저것은 먹이다.

< 해 설 >

<14, 15항>

1. 실질형태소인 체언의 형태를 고정시키고, 조사도 모든 체언에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통일된 형태를 유지시켜 적는다. 받’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대로 적는다면, ‘바치, 바테, 바틀, 받또, 반만’ 처럼 되어서, 실질형태소의 본모양이 어떤 것인지, 또 형식형태소인 조사와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즉, 실질형태소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표기되면, 그 의미 파악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결국,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말은, 체언의 끝 받침을 조사의 첫소리 자리로 내려 적지 않는다는 말이다.

2. 용언의 경우도 실질형태소인 어간의 형태를 고정시키고, 형식 형태소인 어미도 모든 어간에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통일된 형식을 유지시켜 적는다.

3. 중세국어에서는 음절적 표기를 하였기 때문에 체언의 끝 자음을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의 첫소리로 내려적었고, 용언의 경우도 어간의 끝 자음을 모음 어미의 첫소리로 내려적었다. 이렇게 적으면 음절의 경계가 표기에 반영되나 현대국어에서는 분철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음절의 경계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4. [붙임 1]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란 그 단어가 단독으로 쓰일 때에 표시되는 어휘적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변화되었음을 말한다.

1) 다만, ‘넘어지다, 접어들다’의 경우는 의미 구조가 좀 모호하지만, 어원적인 형태를 ‘넘어-지다’, ‘접어-들다’로 해석하는 관례에 따라 여기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넘머지다, 저버들다’로 적어야 할 것이다.

2) 이 규정이 적용되는 단어

나타나다, 바라보다, 바라지다[垢:탁, 터지다, 갈라지다, 싹트다.], 배라먹다[乞食. 큰. 빌어먹다], 부서지다[碎], 불거지다[凸], 부러지다[折], 자라나다[長], 자빠지다[沛], 토라지다[少滯] 등이 더 있다.

5. [붙임 2]

1) 연결형의 경우, 다른 단어의 연결형에 ‘오’ 형식이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하였다. 그러나 종결형의 경우, ‘나도 가오, 집이 크오’ 처럼 모든 용언의 어간에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형태가 ‘오’인데, ‘이-’ 뒤에서만 예외적인 형태 ‘요’를 인정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처리가 아니므로, ‘오’로 적는다.

2) 다만, 표준발음법에서는 이오[이오/이요] 둘 다 표준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1. ‘-아’로 적는 경우

나아	나아도	나아서
막아	막아도	막아서
얹아	얹아도	얹아서
돌아	돌아도	돌아서
보아	보아도	보아서

2. ‘-어’로 적는 경우

개어	개어도	개어서
겪어	겪어도	겪어서
되어	되어도	되어서
베어	베어도	베어서
쉬어	쉬어도	쉬어서
저어	저어도	저어서
주어	주어도	주어서
피어	피어도	피어서
희어	희어도	희어서

< 해 설 >

1. 모음조화에 의한 용언 어간과 어미에 대한 규정이다. 현대국어에 남아 있는 음운규칙으로서의 모음조화는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뿐이다. 양성모음은 ‘아, 오’이고 나머지 모음은 모두 음성모음이다. 중성모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아’는 ‘잡아 ~ 잡어’처럼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어미가 다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성모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는 ‘보아라 ~ \*보어라’에서 보는 것처럼

양성모음으로만 기능한다.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관찰하면 받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다르다. ‘가-아라 ~ \*가어라’. 따라서, ‘아’는 받침이 있는 경우 중성모음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해야 정확한 진술이 될 것이다. ‘오’는 받침이 있는 용언을 찾기 어렵다.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    읽어요  
 참으리    참으리요  
 좋지    좋지요

< 해 설 >

‘요’는 그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어미 뒤에 결합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는 조사다. 이 ‘요’는 의문형 어미 뒤에도 결합한다. 이른바 통용보조사이다. 비격식적인 ‘해요’체에 붙는 ‘요’가 이것이다.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갈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놀다:	노니	논	닙니다	노시다	노오
불다:	부니	분	붐니다	부시다	부오
등글다:	등그니	등근	등굽니다	등그시다	등그오
어질다:	어지니	어진	어집니다	어지시다	어지오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

마지못하다    마지않다(하)다    (하)자마자  
 (하)지마라    (하)지 마(아)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

긋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낫다:	나아	나으니	나았다
잇다:	이어	이으니	이었다
짓다:	지어	지으니	지었다.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그렇다: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러오
까맣다:	까맣다	까말	까마면	까마오
동그랗다:	동그랄	동그라면	동그랍니다	동그라오
퍼렇다:	퍼러니	퍼럴	퍼러면	퍼러오
하얗다:	하야니	하얗	하야면	하야오

4. 어간의 끝 ‘ㄱ, 一’가 줄어질 적

푸다:	퍼	폄다
끄다:	꺼	꼰다
담그다:	담가	담갔다
따르다:	따라	따랐다
뜨다:	떠	떴다
크다:	커	꼰다
고프다:	고파	고팠다
바쁘다:	바빠	바빴다

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걷다[步]:	걸어	걸으니	걸었다
듣다[聽]:	들어	들으니	들었다
묻다[問]:	물어	물으니	물었다
싣다[載]:	실어	실으니	싣었다

6. 어간의 끝 ‘ㅂ’이 ‘ㅍ’로 바뀔 적

깎다:	기워	기우니	기웠다
굽다[炙]:	구워	구우니	구웠다
괴롭다:	괴로워	괴로우니	괴로웠다
맵다:	매워	매우니	매웠다
무겁다:	무거워	무거우니	무거웠다
밉다:	미워	미우니	미웠다
쉽다:	쉬워	쉬우니	쉬웠다

다만,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돕다[助]:	도와	도와서	도와도	도왔다
곱다[麗]: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고왔다

7. ‘하다’의 어미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

하다:	하여	하여서	하여도	하여라	하였다
-----	----	-----	-----	-----	-----

8. 어간의 끝음절 ‘ㄹ’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이르다[至]:	이르러	이르렀다
노르다:	노르러	노르렀다
누르다:	누르러	누르렀다
푸르다:	푸르러	푸르렀다

9. 어간의 끝음절 ‘ㄹ’의 ‘-’가 줄고, 그 위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가르다:	갈라	갈랐다
거르다:	걸러	걸렀다
구르다:	굴러	굴렀다
벼르다:	별러	별렀다
부르다:	불러	불렀다
오르다:	올라	올랐다
이르다:	일러	일렀다

지르다:

질러

질렀다

< 해 설 >

1. 불규칙활용형의 표기

- 1) 불규칙적인 현상들은 소리대로 적고, 규칙적인 현상들은 어법에 맞게 적음.
- 2) '원칙에서 벗어나면' → 불규칙적이면
- 3) 규칙적인 현상의 의미(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 (1) 어간 원래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
  - (2) 어간 원래의 모습이 바뀌더라도 그런 유형의 것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바뀐다.  
(‘으’탈락, ‘르’탈락 - 활용은 규칙으로 다루나 표기에서는 달라지는 대로 표기.)
  - (3) 어미가 모든 어간에 공통된 모습으로 결합한다.
  - (4) 어간과 어미가 원래의 모습과 달라지더라도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 4) 어간이나 어미가 불규칙적인 유형
  - 1)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
  - 2) 어미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
  - 3) 어간과 어미의 모양이 모두 달라지는 것.

2. 불규칙활용의 예

- 1) ‘르’탈락 : 학교문법에서는 규칙활용으로 처리. 어간의 모습이 바뀌기는 하지만, 용언 어간의 말음으로 ‘르’을 가진 것들은 모두 한 방향으로 바뀐.
  - (1) ‘나는’:‘날으는’→‘나는’이 맞음. 하늘을 {나는, \*날으는} 원더우먼
  - (2) 길가에서 {노는, \*놀으는} 아이들
  - (3) 어간 끝 받침 ‘르’은 ‘ㄷ, ㅈ, 아’ 앞에서 줄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관용상 ‘르’이 줄어진 형태가 굳어져 쓰이는 것은 준 대로 적는다.  
멀지않아(x), 머지않아(0); 하지 말아라(x), 하지 마라(0)

2) ‘스’불규칙

- (1) 이 외에도, ‘붓다, 잤다, 져다’는 ‘스’이 줄어든다. 그러나 ‘벗다, 빗다, 빼앗다, 솟다, 찢다, 웃다’ 등은 ‘스’ 받침이 줄지 않는다.  
(\* 중세국어에서 ‘웃다’는 불규칙활용을 하였다. 하오사 우수물 우사<곡:168>, 우음 우어셔<두중 5:53>
- (2) ‘줍다’가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는 있지만, ‘줍다’의 방언형으로 처리한다. 재구조화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 (3) 중세국어에서 ‘스>ㅅ’의 변화를 경험한 용언들은 대부분은 현대국어에서 불규칙활용을 한다.

3) ‘ㅎ’불규칙 :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바뀐다

- (1) 형용사의 어간 끝 받침 ‘ㅎ’이 어미 ‘-네’나 모음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다만, 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에는 ‘-애/-에’로 나타난다.

노랗다 노라네, 노란, 노라니, 노래, 노래지다

허열다 허여네, 허열, 허여면, 허예, 허예지다

(2) ‘ㅎ’불규칙 용언의 경우에 종결어미 ‘-ㅂ니다’를 연결시키지 않는다. ‘-ㅂ니다’는 모음으로 끝난 어간 뒤에 붙는다. 따라서 ‘ㅎ’불규칙 용언의 경우는 받침이 있는 말 다음에 붙는 어미 ‘-습니다’가 붙어야 한다. 예) 하얗습니다

4) ‘우’ 불규칙, ‘으’탈락

(1) ‘우’ 불규칙활용 어간은 ‘푸다’ 하나뿐이다.

(2) ‘으’ 탈락은 학교문법에서 규칙활용으로 다룬다.

5) ‘ㄷ’불규칙

(1) 이 외에도 ‘걷다, 깨닫다, 논다, 달다(走), 붙다, 일컫다’ 등은 ‘ㄷ’이 ‘ㄹ’로 바뀐다. 그러나 ‘걷다(收, 撤), 닫다(閉), 돋다, 뜯다, 묻다(埋), 민다, 받다, 벌다, 뺏다, 얻다, 곧다, 굶다’ 등은 ‘ㄷ’이 ‘ㄹ’로 바뀌지 않는다.

6) ‘ㅂ’불규칙

(1) 이 외에도 ‘눅다, 줍다, 가볍다, 간지럽다, 그림다, 노엽다, 더럽다, 덩다, 메스껍다, 미덥다, 사납다, 서럽다, 아니꼽다, 어둡다, 역겹다, 즐겁다, 지겹다, 차갑다, 춥다’ 등과 접미사 ‘-답다, -롭다, -스럽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들은 ‘ㅂ’불규칙 활용을 한다. 반면에, ‘(손)꼭다, 뽀다, 찹다, 엷다, 잡다, 점다, 집다, (손이) 곱다, 굽다(曲), 좁다’ 등은 ‘ㅂ’이 ‘우’로 바뀌지 않는다.

(2) 모음이 ‘ㄱ’인 단음절 어간 뒤에 결합하는 ‘-아’의 경우만 ‘와’로 적고, 그 밖의 경우는 모두 ‘워’로 적는다.

7) ‘여’불규칙 : 어미가 불규칙하게 결합하는 예이다. ‘하-’ 어간에만 붙는다.

8) ‘러’불규칙 : 어미가 불규칙하게 결합하는 예이다.

9) ‘르’불규칙 :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바뀐다.

### 제 3 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담이	별이	벼훤이	살림살이	쇠붙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앞   만들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궂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굽도리   다리[髀]   목거리(목병)   무너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붙임] 어간에 '-이'나 '-음'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명사로 바뀐 것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올라미   주검

(2) 부사로 바뀐 것

거뭇거뭇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불긋불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나마   부터   조차

< 해 설 >

1. 명사화 접미사 '-이, -음'과 부사화 접미사 '-이, -히', 사·피동접미사는 규칙적인 접미사다.(학교문법에서는 이 세 유형만 규칙적인 접미사로 인정)

1) 규칙적 접미사의 특성

(1) 비교적 여러 어간에 널리 결합한다.

(2) 어간의 의미는 변화시키지 않고 문법 범주만을 바꾸거나 의미를 첨가한다.

2) 이런 특성을 가진 접미사의 경우는 어간과 접미사를 구분하여 적는다.

3) 만일 형태는 규칙적인 접미사와 같이 '-이, -히, 사.피동접미사'이지만 어간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 사이에 유연성이 없다면 규칙적인 접미사로 볼 수 없으므로 소리대로 적는다.(‘다만’ 규정)

4) ‘겨레붙이, 쇠붙이, 일가붙이, 피붙이’에서 ‘붙-’에는 ‘붙다, 딸리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소리나는 대로 ‘부치’로 적지 않고 ‘붙이’로 적는다.

2. ‘ㄹ’ 받침 용언의 표기

1) ‘ㄹ’ 받침을 가진 용언의 명사형은 어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은 어미의 첫소리 ‘ㄴ, ㅂ, ㅅ’ 및 어미 ‘-(으)오, -(으)ㄹ’ 앞에서만 줄어지기 때문이다. ‘놀며’에서 보는 것처럼 ‘ㄹ’ 앞에서는 ‘ㄹ’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놀을(놀+을)’이 [놀믈]처럼 ‘ㄹ’

이 소리나는 것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놀다’의 명사형이 ‘놀음’이 아니라 ‘놀이’이 되는 것은 모음이나 ‘ㄹ’ 받침 뒤에서 어미의 일부분인 ‘으’가 탈락하는 규칙에 따른다. ‘\*놀음’이 ‘놀이’이 된 것이다. ‘먹으며, 놀며, 가며 : 먹으니, 노니, 가니’ 등과의 비교에 의해서도 모음이나 ‘ㄹ’ 받침 뒤에서 어미의 일부분인 ‘으’가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명사형을 만드는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2목' 규정)

예) 만들다 → 만듦, 갈다 → 값, 빌다 → 빚, 어질다 → 어짊, 멀다 → 멀

2) 그러나 파생명사의 경우에는 명사형과 달리 ‘-음’이 결합될 수 있다. 파생명사는 용언의 어간에 파생접사인 ‘-음’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놀다’의 파생명사는 ‘놀음[여럿이 모여 즐겁게 노는 일]’이나 ‘노름[돈이나 물건을 걸고 주사위, 화투, 트럼프 따위를 사용하여 서로 따먹기를 하는 짓]’이 된다. 이런 파생명사들은 명사형과 달리 용언의 서술성도 상실되고 용언의 어간이 가지는 의미와도 약간 변화한 것으로 명사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국립국어원 가나다전화>

3) 붙임 규정 : 이 외에도 ‘너비(물건 옆의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의 거리. 폭), 도리깨, 두루마리, 목도리, 빈털터리, 턱거리[남에게 찌그령이를 붙일 만한 핑계; 턱 아래 생기는 종기.](비교. 턱걸이)’ 따위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낱낱이 뭉뭉이 샅샅이 앞앞이 집집이

2. 명사로 된 것

곰배팔이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육손이 절뚝발이/절름발이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꼬락서니            끄트머리            모가치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짜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 해 설 >

1. 불규칙적 접미사는 ‘(1) 한두 어휘에서만 발견되고, (2) 어간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특성’을 갖는데 이런 경우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2. 예외) 값어치, 벼슬아치.

- 1) ‘값어치’에서 ‘어치’는 사전에서 접미사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면, ‘\*갑서치’ 혹은 발음 형태를 취하여 ‘\*가버치’로 적어야 할 것이나 ‘어치’는 의존 명사적 성격이 강하고 ‘어치’가 붙은 ‘값’의 형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형식으로 다루고, 관용에 따라 ‘값어치’로 적는다.
- 2) ‘벼슬아치’의 경우도 ‘아치’가 사전에서 접미사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벼스라치’

로 적어야 하나 사람들이 '벼슬'이라는 형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관용에 따라 '벼슬아치'로 적는다.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값지다 흠지다 녀두리 빛깔 옆댕이 잎사귀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낚시            늪정이            덮개            뜯게질            갑작갑작하다  
 갑작거리다    뜯적거리다    뜯적뜯적하다    굶다랴다    굶직하다  
 깊숙하다      넓적하다      높다랴다      늙수그레하다    엷죽엷죽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할짝거리다    널따랴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쭉하다    실끔하다    알따랴다    알팍하다  
 짤따랴다      짤막하다    실컷
-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녀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 해 설 >

'녀치'는 廣魚와 대응시켜보면 '넓다'와 결부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아 소리대로 적는다. '올무(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도 '웁다'와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역시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으므로 '올무'로 적는다. '골막하다'는 '굶다'와 연관되지 않고, '납작하다'는 '넓적하다'의 작은말로 설명되지만 '납다, 넓다'와 같은 단어가 없으므로, 어원이 불분명한 것으로 다루어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1.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오키-, -이키-, -애-'가 붙는 것  
 말기다    윗기다    웃기다    쫓기다            뚫리다            울리다  
 낚이다    쌓이다    핥이다    굳히다            굶히다            넓히다  
 앉히다    엷히다    잡히다    돌구다            솟구다            돋우다  
 갖추다    곧추다    맞추다    일으키다            돌이키다            없애다
- 다만, '-이-, -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도리다(칼로 ~)    드리다(용돈을 ~)    고치다    바치다(세금을 ~)  
 부치다(편지를 ~)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2. '-치-, -뜨리-, -트리-'가 붙는 것

놓치다 덮치다 떠받치다          받치다    받치다    부딪치다  
 뺨치다    옆치다    부딪뜨리다/부딪트리다    쏘뜨리다/쏘트리다  
 젓뜨리다/젓트리다    찢뜨리다/찢트리다          흘뜨리다/흘트리다

[붙임] ‘-업-, -음-, -브-’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미덥다          우습다          미쁘다

< 해 설 >

피·사동접미사는 피동과 사동의 의미와 기능을 표시하는 접미사들로, 규칙적인 접미사로 처리한다. 따라서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음으로써, 그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한다.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깔쭉이    깔쭉기  
 꿀꿀이    꿀구리  
 눈깜짝이    눈깜짜기  
 더떨이    더퍼리  
 배불뚝이    배불뚜기  
 삐죽이    삐주기  
 살살이    살사리  
 썹썹이    썹썹기  
 오뚝이    오뚜기  
 코납작이    코납자기  
 푸석이    푸서기  
 흘쭉이    흘쭉기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깝두기    팽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부스러기  
 뼈꾸기    얼루기    칼썩두기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깜짝이다    깜짜기다  
 꾸벅이다    꾸버기다  
 끄덕이다    끄더기다

뒤척이다뒤쳐기다  
 들먹이다들머기다  
 망설이다망서리다  
 번득이다번드기다  
 번쩍이다번쩌기다  
 속삭이다속사기다  
 속덕이다속더기다  
 울먹이다울머기다  
 움직이다움지기다  
 지껄이다지꺼리다  
 퍼덕이다퍼더기다  
 허덕이다허더기다  
 혈떡이다혈떠기다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פות이깨끗이

[붙임] ‘-하다’가 붙지 않은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    생긱이    오뚱이    일찍이    해죽이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솔하다    착하다    텅텅하다    푹하다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 해 설 >

‘-하다, -없다’는 규칙적으로 결합하는 접미사다. 그러므로, ‘-하다, -없다’가 결합된 형식임을 밝히므로써 형태상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제 4 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국말이    꺾꽃이    꽃잎    끝장    물난리



마소(말-소)                      무자위(물-자위)    바느질(바늘-질)  
 부나비(불-나비)    부삽(불-삽)                      부손(불-손)  
 소나무(솔-나무)    싸전(쌀-전)                      여달이(열-달이)  
 우짚다(울-짚다)    화살(활-살)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으로 적는다.

반질고리(바느질~)              사흔날(사흘~)    삼진날(삼질~)    선달(설~)  
 숟가락(술~)    이튼날(이틀~)    잔주름(잘~)    풀소(풀~)  
 선부르다(설~)    잔다듬다(잘~)    잔다랗다(잘~)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깃밥    나룻배    나뭇가지넷가    댕가지  
 뒷갈망    멧돌    머릿기름    모깃불    못자리    바닷가  
 뱃길    벧가리    부싷돌    선짓국    쇧조각    아랫집  
 우렁잇속    잇자국    잣더미    조갯살    찻집    헛바퀴  
 킧값    핏대    햇별    헛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텃머리  
 잇몸    깧목    냇물    빗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래깧열    텃웃    두렛일    텃일    텃입맛  
 베깧잇    윗잇    깧잇    나뭇잎    댕잎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깧병    머릿방    뱃병    붓득    사жат밥  
 샛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찻종    좃국    콧병    탱줄    텃세  
 핏기    헛수    횃가루    횃배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깧날    제삿날    훗날    텃마루    양칫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텃간(退間), 횃수(回數)

## 1. 사이시옷의 표기

1) 다음 조건 중 필수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수의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1) 필수 조건 :

- ① 'N1 + N2'이면서 'N1'이 모음으로 끝난다.
- ② 'N1'과 'N2' 둘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한다.

(2) 수의 조건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 ① 'N2'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 ② 'ㄴ'소리가 첨가된다.
- ③ 'ㄴㄴ'소리가 첨가된다.

(3) 한자어 합성어의 경우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예) 내과[내과], 초점[초점] (예외 : 숫자, 셋방, 곳간, 횡수, 틈간, 찻간)

2) 사잇소리 현상의 불규칙성 - 규칙화하기 어렵다.

(1) 합성어가 될 때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고래기름, 참기름, 기와집, 오리발, 은돈

(2)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김밥 [김 :밥]/[김빱]

(3) 사잇소리의 개입 여부에 따라 의미가 분화되기도 한다.

예) ㄱ. 나무+집(나무집) → [나무짚] : 나무를 파는 집.

      ㄱ'. 나무+집 → [나무집] : 나무로 만든 집.

      ㄴ. 고깃배[고기뺨]-漁船

      ㄴ'. 고기배[고기배]-魚腹

## 2. 그 밖의 것들

1) 예 : 옛

(1) '예'는 명사, '옛'은 관형사.

① 얼굴이 예나 다름없다. ② 예로부터 전해 온 이야기. ③ 산천은 예와 같으나 인물은 간 곳이 없구나!

(2) ① 옛 기억이 아련히 떠오른다. ② 너의 옛 모습을 잊을 수 없다.(옛 성터, 옛 도서관, 옛 책상, ...)

(3) 명사로 쓰이는 '예'는 '먼 과거를 다소 막연하게 이르는 말'로 그 쓰임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보조사 '나'나 격조사 '(로)부터', '와'가 뒤에 결합한 형태만 주로 보인다. 반면 '옛'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서, 폭넓게 쓰이고 있다. 이 관형사 '옛'은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기도 한다. ‘옛것, 옛길, 옛날, 옛말, 옛사랑, 옛이야기, 옛이음, 옛일, 옛적, 옛정, 옛집, 옛터’ 등은 ‘옛’이 합성어의 어기로 쓰인 예이다.

2) ‘띠다’, ‘띄다’, ‘떼다’의 구분<임동훈, 한글맞춤법 100제>

(가) 미소를 띠다 / 하늘이 붉은색을 띠다 / 그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파견되었다

(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마라 / 알맞게 띄어 써야 글이 읽기가 쉽다

(다) 젓을 떼다 / 벽보를 떼다 / 영수증을 떼다 / 기초 영어를 다 떼다